http : //dx.doi.org/10.5723/KJCS.2012.33.3.1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 인지적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영향 요인 : 부모와 유아의 의도적 통제와 애정적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Factors Affecting Preschooler's Prosocial Behavior and Cognitive Problem-solving Ability : Focusing on the Parents' and Preschooler's Effortful Control, and Affectionate Parenting Behavior*

배윤진(Yun Jin Bae)[1)]
임지영(Ji Young Lim)[2)]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s' control, affectionate parenting behavior, preschooler's effortful control, prosocial behavior, and cognitive problem-solving ability. The subjects for this study comprised 221 preschoolers (104 boys, 117 girls) and their parents.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parents' effortful control revealed direct effects upon preschooler's effortful control, and affectionate parenting behavior mediated the effects of parents' effortful control upon preschooler's effortful control. Second, preschooler's effortful control mediated the effects of affectionate parenting behavior upon preschooler's prosocial behavior. Third, preschooler's effortful control had direct effects upon prosocial behavior, and prosocial behavior mediated the effects of preschooler's effortful control upon cognitive problem-solving ability. In conclusion, parents' effortful control and affectionate parenting behavior impacted upon preschooler's effortful control. And preschooler's effortful control had an important role upon prosocial behavior and cognitive problem-solving ability.

Key Words : 의도적 통제(effortful control), 애정적 양육행동(affectionate parenting behavior), 친사회적 행동(prosocial behavior), 인지적 문제해결능력(cognitive problem-solving ability).

---

* 본 논문은 2012년도 경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1)] 경북대학교 아동학부 · 아동가족학전공 강사
[2)] 경북대학교 아동학부 · 아동가족학전공/장수생활과학연구소 조교수
Corresponding Author : Ji Young Lim, School of Child Studie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80 Daehak-ro, Buk-gu, Daegu 702-701, Korea
E-mail : limj@knu.ac.kr

I. 서 론

정서와 행동을 조절하는 개인의 역량을 반영하는 의도적 통제(effortful control : EC)는 Ahadi, Rothbart와 Ye(1993)의 연구에서 처음으로 제안한 기질의 한 구성요소이다. 이는 자기 조절과 관련된 기존의 개념들을 기질 이론의 틀 안에서 포괄적으로 수렴하였다는 평가를 받으며 학계에 큰 영향을 주었고(Putnam & Stifter, 2008),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대한 시사점으로 인해 최근에 더욱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개념이다.

의도적 통제는 '우세한 반응을 억제하는 능력과 하위 반응을 활성화하고, 계획하고, 실수를 발견하는 능력을 포함하는 실행 주의력(executive attention)의 효율성'(Rothbart & Bates, 2006)으로 정의된다. 이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의도적 통제는 기질적 측면에서 연구되기도 하지만 자기 조절 특히, 정서를 조절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율적인 조절 능력의 일환으로 연구되어지고 있고, 신경학적인 측면에서는 실행 주의력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연구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세 가지 관점을 통합하여, 실행 주의력과 관련한 기질의 한 요소이자 자기 조절의 기초가 되는 능력으로서의 의도적 통제를 살펴볼 것이다.

기질의 하위 요인들 대부분이 영아기 초기에 나타나는 것에 비해 의도적 통제는 비교적 늦게 발현되며, 걸음마기 동안 빠르게 발달하여 그 이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pinrad, Eisenberg, & Gartner, 2007). 따라서 의도적 통제의 출현과 발달 과정은 영아기 후기부터 살펴볼 수 있지만 의도적 통제의 향상과 타 발달 영역과의 관계는 유아기에 살펴보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여겨지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를 주요 대상으로 삼아 의도적 통제의 발달과 관련 변인들과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발달 영역들과 마찬가지로 의도적 통제는 유전적인 특성들을 반영하지만 경험이나 환경에 의해서도 그 발현 시기나 발달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Rothbart & Bates, 2006). 과거에는 기질을 타고난 특성으로 보고 이에 따른 개인차에만 초점을 두었지만, 최근의 연구들은 기질을 타고난 특성뿐 아니라 영유아기 동안 나타나는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 특성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의도적 통제의 발달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타고난 특성뿐 아니라 환경적 영향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유아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의도적 통제 연구에 있어 가장 영향력 있는 환경이라 할 수 있는 부모 관련 변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의 기질 및 자기 조절 수준과 같은 부모의 성향이 그들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자녀의 사회적 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제안하였으며(Belsky, 1984; Cumberland-Li, Eisenberg, Champion, Gershoff, & Fabes, 2003), 특히 Eisenberg, Cumberland와 Spinrad(1998)는 부모의 의도적 통제 능력이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정서 관련 행동에 영향을 주고, 이러한 부모의 행동이 자녀의 의도적 통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즉,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부모의 의도적 통제가 유아의 의도적 통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부모의 의도적 통제가 그들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쳐서 다시 자녀의 의도적 통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부모의 양육과 자녀의 의도적 통제 간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들(Eisenberg et al., 2005; Gilliom et al., 2002)에 따르면, 따뜻하고 지지적인 양육과 긍정적인 표

현이 의도적 통제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의도적 통제에 있어 부모의 의도적 통제와 양육 행동이 어떻게 기여하는지, 특히 부모와 유아의 의도적 통제 간의 관계에서 부모의 애정적 양육 행동이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렇다면 의도적 통제는 유아의 발달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지금까지 의도적 통제와 제 발달 영역 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을 살펴보면 공감능력(Valiente et al., 2004), 문제 행동(Eisenberg et al., 2005; Eisenberg et al., 2009; Valiente, Lemery-Chalfant, & Reiser, 2007; Zhou et al., 2008), 사회적 유능감(Lengua, Honorado, & Bush, 2007; Spinrad et al, 2007), 적응(Dennis, Brotman, Huang, & Gouley, 2007; Zhou, Lengua, & Wang, 2009) 등 사회·정서 영역과의 관계를 가장 많이 다루고 있으며, 의도적 통제가 이러한 사회·정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의도적 통제의 영향은 정서 발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즉, 의도적 통제는 정서적 표현과 정서의 명시적인 행동을 조절하기 위해 사용될 뿐만 아니라 비정서적 행동을 조절하고 비정서적인 기능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최근에 제기되었다(Eisenberg, Hofer, & Vaughan, 2007; Spinrad et al., 2007). 이는 의도적 통제가 자기조절 능력의 기초가 되어 각 발달 영역에 영향을 준다고도 이해할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의도적 통제와 관련하여 사회·정서 발달 영역을 다룬 연구뿐만 아니라 소수이지만 인지 발달 영역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도 이루어지고 있다. 의도적 통제와 인지 능력을 함께 다룬 선행연구들은 의도적 통제가 아동의 읽기 기술(Deater-Deckard, Mullineaux, Petrill, & Thompson, 2009), 수학 및 문해 능력(Blair & Razza, 2007), 그리고 주의력(Chang & Burns, 2005; Dennis & Brotman, 2003)과 같은 인지 능력과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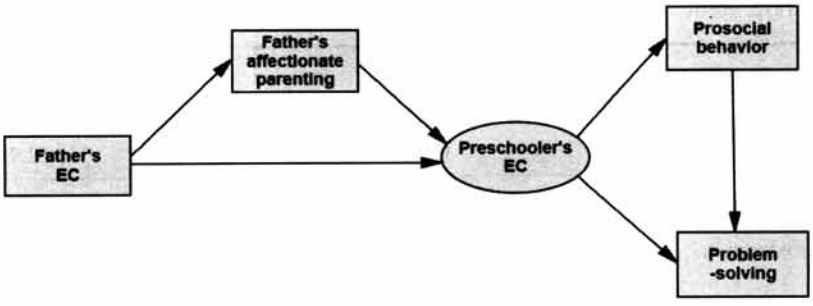
이처럼 의도적 통제는 정서 발달을 넘어서 유아의 여러 발달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에 국외에서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기질 연구를 제외하고는 의도적 통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연구가 소수에 불과하며 사회·정서 발달과의 관계만을 다루고 있어(Moon, 2010; Yun, 2009; Han, 2010) 의도적 통제와 타 발달 영역 간의 관계를 폭넓게 이해하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의도적 통제와 발달 영역 간의 관계에 대한 명확하고 포괄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의도적 통제와 유아의 사회·정서 능력 및 인지 능력 간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도적 통제가 사회·정서 능력과 인지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볼 것이며, 특히 사회·정서 능력 중에서는 친사회적 행동을, 인지 능력 중에서는 인지적 문제해결능력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의도적 통제와의 관계를 이해하려고 한다.

친사회적 행동은 타인의 행복에 대해 관심을 갖고 배려하는 특성인 이타성이 행동으로 나타난 것으로 타인과의 관계에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보이는 것을 뜻하며(Park, 2010), 도덕적 사고의 발달, 정보처리능력의 발달, 그리고 정서 및 정서 조절 능력의 발달은 친사회적 행동의 증가를 가져온다(Park, 2006). 정서와 관련하여 의도적 통제가 높은 개인은 타인의 정서 상태에 대해 자기중심적이거나 회피적인 반응보다는 타인 지향적 반응 즉, 감정이입적 표현을 더 잘하는 경향이 있으며(Eisenberg et al., 2007), 이에 의도적 통제와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가 국외에서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주제이지만 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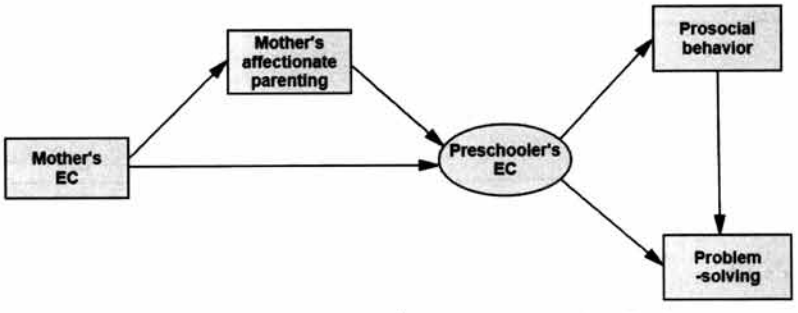
내에서는 의도적 통제와 부정적인 사회성 측면 즉, 문제 행동 및 공격성과의 관계만 주로 다루고 있어(Moon, 2010; Han, 2010) 이에 관한 좀 더 많은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가정 이외의 환경에 처음 노출되어 사회성 발달이 중요해지는 시기인 유아기의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의도적 통제를 살펴보는 것은 건강한 사회·정서 발달을 위한 기초를 발견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유아의 의도적 통제 및 친사회적 행동과 부모의 따뜻하고 지지적인 양육행동을 함께 살펴본 선행연구들(Eisenberg et al., 2005; Spinrad et al., 2007; Valiente et al., 2007)에서 나타난 이들의 관계를 바탕으로 애정적 양육행동과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에서 유아의 의도적 통제가 매개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유아의 사회적 기능에 유아의 의도적 통제와 부모의 애정적 양육행동이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인지적 문제해결능력은 문제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유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의미하며, 계획하기, 인과 추론, 유추 등의 문제 해결 과정을 거치는 목표 지향적 인지 활동으로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자료들을 적절히 조직할 수 있는 능력, 효과적인 전략 사용 능력, 교란되지 않는 능력, 실수를 인식하고 교정할 수 있는 능력, 필요에 따라 반복하는 능력 등이 요구되며(Shin, 2008), 특히 자기 조절 능력을 필요로 한다(Flavell, Miller, & Miller, 2003). 따라서 인지적 문제해결능력의 향상을 위해서는 계획하고, 실수를 발견하고,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 등을 포함하는 의도적 통제 능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인지적 문제해결능력과 의도적 통제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인지적 문제해결능력의 향상을 뒷받침하는 기질 및 정서적 요인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친사회적 행동이 인지적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선행연구들(Welsh, Parke, Widaman, & O'Neil, 2001)에 기초하여 유아의 의도적 통제와 친사회적 행동 및 인지적 문제해결능력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유아의 발달에 있어 의도적 통제의 역할을 발견하고 발달의 제 영역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의 의도적 통제의 발달 기제를 규명해보고 이에 따른 유아의 인지 및 사회적 능력에서의 발달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유아의 의도적 통제에 있어 부모의 의도적 통제와 애정적 양육행동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들의 관계에서 부모의 애정적 양육행동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또한 부모의 애정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의도적 통제를 통해 친사회적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유아의 의도적 통제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및 인지적 문제해결능력을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유아의 의도적 통제와 인지적 문제해결능력 간의 관계에서 친사회적 행동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조사해봄으로써 부모의 애정적 양육행동, 유아의 의도적 통제, 친사회적 행동, 그리고 인지적 문제해결능력 간의 관계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특히 유아의 의도적 통제에 대한 부모의 영향을 상세히 살펴보기 위해 아버지의 영향과 어머니의 영향을 구분하여 분석할 것이다. 선행연구들(Kim & Yu, 2011; Bae & Lim, 2012)에 따르면 자녀의 의도적 통제에 대한 영향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를 수 있으며, 자녀의 의도적 통제에 영향을 주는 부모 특성에 관한 명확한 이해를 얻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특성이 각각 어떻게 자녀의 의도적 통제에 있어 개인차를 가져오는지에 관해 살펴보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기 때문이다.



〈Figure 1〉 Model 1-Relationships between father's effortful control, affectionate parenting behavior, preschooler's effortful control, prosocial behavior, and cognitive problem-solving ability



〈Figure 2〉 Model 2-Relationships between mother's effortful control, affectionate parenting behavior, preschooler's effortful control, prosocial behavior, and cognitive problem-solving ability

이에 따른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버지의 의도적 통제와 애정적 양육행동 및 유아의 의도적 통제, 친사회적 행동, 인지적 문제해결 능력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의도적 통제와 애정적 양육행동 및 유아의 의도적 통제, 친사회적 행동, 인지적 문제해결 능력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D시 소재 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3~5세 유아와 그들의 부모 221쌍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 유아의 평균 월령은 63.24개월(SD = 10.17)이었으며, 유아들 부모의 평균 연령은 아버지 39.15세(SD = 3.29), 어머니 36.79세(SD = 3.06)이었다.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 측정 도구

1) 부모의 의도적 통제

부모의 의도적 통제는 성인용 기질 평가지인 Adult Temperament Questionnaire-Short Form (ATQ-SF; Rothbart, Ahadi, & Evans, 2000) 중 의도적 통제를 측정하는 19문항을 본 연구자가 번안한 후 아동학과 영문학 복수 전공자의 검토 과정을 거친 뒤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7점 리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 = 221)

Variables		n (%)
Gender	Boy	104(47.1)
	Girl	117(52.9)
Father's education	High school	24(10.9)
	College	175(79.2)
	Graduate school	21(9.5)
	Missing	1(0.5)
Mother's education	High school	32(14.6)
	College	172(77.8)
	Graduate school	17(7.7)
Father's job	Self-employed	56(25.3)
	Office worker	123(55.7)
	Professional	23(10.4)
	Other	19(8.6)
Mother's job	Self-employed	16(7.2)
	Office worker	25(11.3)
	Professional	35(15.8)
	Homemaker	141(63.8)
	Other	4(1.9)
Household income	Below 2,000,000 won	19(8.6)
	2,000,000~4,000,000 won	125(56.7)
	4,010,000~6,000,000 won	55(25.0)
	Over 6,000,000 won	19(8.6)

트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의도적 통제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척도를 어머니와 아버지가 각각 응답하도록 하였다. 또한 19문항 중 전체 신뢰도 수준을 하향시킨다고 판단되는 한 개의 문항을 제외한 후 점수를 계산하여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척도의 Cronbach α는 아버지일 때 .77, 어머니일 때 .74이었다.

2) 유아의 의도적 통제

유아의 의도적 통제를 측정하기 위해서 부모와 교사가 질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유아에게는 과제를 제시하고 관찰하였다.

(1) 의도적 통제 질문지

유아의 의도적 통제는 만 3~7세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질 평가지인 Children's Behavior Questionnaire-Short Form(CBQ-SF; Putnam & Rothbart, 2006) 중 의도적 통제를 측정하는 32문항을 본 연구자가 번안한 뒤 아동학과 영문학 복수 전공자의 검토 과정을 거쳐서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부모가 응답하도록 만들어진 7점 리커트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의도적 통제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Cronbach α는 .88로 나타났다. 또한 동일한 질문지이지만, 유아의 담임교사에게는 교사가 응답하도록 만들어진 Children's Behavior Question-

naire-Teacher Form(Short Form)을 사용하여 질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교사용 척도의 Cronbach α는 .91로 나타났다.

(2) Kochanska의 의도적 통제 과제 (EC Battery)

Kochanska, Murray와 Harlan(2000)의 의도적 통제 과제는 영아기부터 학령기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의도적 통제를 측정할 수 있도록 고안된 일련의 도구로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의도적 통제를 측정하는 실험법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과제를 사용하고 있는 몇몇 선행연구들(Eiden, Edwards, & Leonard, 2007; Graziano, Keane, & Calkins, 2010; Lengua, 2008; Li-Grining, 2007)을 바탕으로 하여 3개의 과제 즉, 간식 지연(Snack Delay), 거북이와 토끼(Turtle and Rabbit), 그리고 적록 신호(Red-Green Sign) 과제를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의도적 통제 전체 점수는 각 과제 점수를 표준화 한 후 모두 합한 값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각 과제의 평정자간 일치도는 간식 지연 과제 .99, 거북이와 토끼 과제 1.00, 적록 신호 과제 1.00이었으며, 간식 지연 과제에서 두 평정자의 점수가 일치하는 않은 경우에는 두 평정자가 의논하여 한 점수를 결정하였다.

3) 부모의 애정적 양육행동

부모의 애정적 양육행동은 Bae(2001)가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구성한 척도 중 애정-거부 요인에 해당하는 12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평가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점수가 낮을수록 거부적인 양육행동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척도를 어머니와 아버지가 각각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이 척도의 Cronbach α는 아버지는 .91, 어머니는 .90으로 나타났다.

4)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은 친사회적 행동평가 척도-간편형을 사용하여 교사가 평가하도록 하였다. 친사회적 행동평가 척도-간편형은 Kim (2003)이 개발한 척도를 Seo(2006)가 만 4,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여 14문항으로 재구성한 척도이다.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Cronbach α는 .88로 나타났다.

5) 유아의 인지적 문제해결능력

인지적 문제해결능력은 편지배달 과제와 원숭이 옮기기 과제로 측정하였으며, 두 과제의 점수를 표준화하여 합한 값을 인지적 문제해결능력의 점수로 하였다. 편지배달 과제는 계획하기 등의 인지적 문제해결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Gauvain(1992, as cited in Duran & Gauvain, 1993)이 개발한 것으로 우체국과 일방통행 길이 그려진 그림판을 이용하여 서로 다른 색깔의 집에 알맞은 편지를 순서대로 배달하도록 하는 과제이다. 총 다섯 집에 편지를 배달하는 4단계 검사까지 진행하였으며, 각 검사 단계마다 두 번까지 시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총점의 범위는 0~8점이었으며, 평정자간 일치도는 1.00이었다.

원숭이 옮기기 과제는 아동의 인지적 문제해결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하노이탑(tower of Hanoi) 과제를 Welsh(1991)가 어린 아동에게 적합하도록 수정한 과제이다. 세 개의 나무가 그려진 그림판과 원숭이 그림을 사용하여 규칙에 맞게 1단계에서는 두 마리의 원숭이들을 가장 왼쪽 나무에서 가장 오른쪽 나무로 옮겨야 하며, 2단계에서는 세 마리 원숭이들

을 옮겨야 하는 과제이다. 유아들이 1단계를 성공한 경우에만 2단계를 제시하였으며, 각 단계에서는 2번까지 시도할 수 있다. 점수는 각 단계에서 성공하면 2점을 부여하였으며, 단, 1단계에서 연구자 시범 후 성공하면 1점만을 부여하였다. 총점의 범위는 0~4점이었으며, 평정자간 일치도는 1.00이었다.

3. 연구절차

질문지 문항에 대한 응답자의 이해도와 작성 시간, 관찰 과제 소요 시간, 질문지 및 과제에서의 문제점 등을 알아보기 위해 2011년 9월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 6명(만 3, 4, 5세 남녀 각각 1명씩)과 그들의 부모 및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편의표집에 의해 D시 소재 4개소 유치원에 협조를 구하여 이루어졌으며, 2011년 9~10월에 해당 원에 재원 중인 유아들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먼저 부모 질문지는 총 330부를 배부하여 총 235부를 회수하였으며(회수율 71.2%), 부모가 질문지에 응답한 경우 유아 평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유아 23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고 교사 질문지를 회수하였다. 그 중 질문지 응답이나 과제에 대한 기록이 부실한 것을 제외한 221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PASW Statistics 18(SPSS 18.0)과 AMO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둘째, 사용한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 α값을 산출하였으며, 평정자간 일치도를 구하기 위해 급내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분석에서 사용한 변인들에 대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부모의 의도적 통제 및 애정적 양육행동, 유아의 의도적 통제, 친사회적 행동과 인지적 문제해결능력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공분산 구조방정식 모형(SEM : Structural Equation Model)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측정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부모의 의도적 통제 및 애정적 양육행동과 유아의 의도적 통제, 친사회적 행동, 인지적 문제해결능력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먼저 유아의 의도적 통제와 다른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부모가 보고한 유아의 의도적 통제 점수는 부모의 의도적 통제(부 r = .25, p < .001; 모 r = .34, p < .001) 및 부모의 애정적 양육행동(부 r = .34, p < .001; 모 r = .48, p < .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의 의도적 통제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양육행동이 애정적일수록 가정에서 보이는 자녀의 의도적 통제 수준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도적 통제의 부모 보고 점수(r = .21, p < .01; r = .15, p < .05), 교사 보고 점수(r = .61, p < .001; r = .19, p < .01), 과제 관찰로 측정한 점수(r = .18, p < .01; r = .37, p < .001) 모두 친사회적 행동 및 인지적 문제해결능력과의 관계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의도적 통제 수준이 높은 유아는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보이

〈Table 2〉 Zero-order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N = 221)

		F-EC	M-EC	Pre-EC			F-parenting	M-Parenting	Prosocial behavior	Problem-solving
				Parent	Teacher	Test				
F-EC		1								
M-EC		.17**	1							
Pre-EC	Parent	.25***	.34***	1						
	Teacher	.03	.04	.30***	1					
	Test	.05	.04	.21**	.12	1				
F-parenting		.21**	.25***	.34***	.11	-.02	1			
M-Parenting		.07	.35***	.48***	.11	.04	.56***	1		
Prosocial behavior		.05	-.01	.21**	.61***	.18**	.10	.07	1	
Problem-solving		.07	-.01	.15*	.19**	.37***	-.06	-.12	.20**	1

Note : Pre = Preschooler, M = Mother, F = Father, EC = Effortful Control.
*p < .05. **p < .01. ***p < .001.

며, 뛰어난 인지적 문제해결능력을 보였다. 한편 친사회적 행동과 인지적 문제해결능력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r = .20, p < .01), 이는 친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유아일수록 인지적 문제해결능력 또한 뛰어난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부모의 의도적 통제와 양육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아버지(r = .21, p < .01)와 어머니(r = .35, p < .001)의 의도적 통제는 각각 자신의 애정적인 양육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여 의도적 통제 수준이 높은 부모일수록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양육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부모 각각의 애정적 양육행동(r = .56, p < .001)은 서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 중 한 사람이 애정적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다른 한 부모도 애정적 양육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부모의 의도적 통제와 애정적 양육행동 및 유아의 의도적 통제, 친사회적 행동, 인지적 문제해결능력 간의 관계 모형 분석

연구모형 분석에 앞서 구조방정식의 기본 가정인 다변량 정규성이 충족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과제 관찰로 측정한 유아의 의도적 통제 점수(z값)의 경우 첨도가 1.726으로 절대값이 1보다 크지만 극단치 범위에는 해당하지 않았고(Kim, 2011), 그 외 모든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았으므로 다변량 정규성 가정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여기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의도적 통제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을 구분하여 상세히 알아보기 위해 부모 각각의 연구모형을 제시하고 분석하였으며,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한 적합도 지수를 산출하였다.

1) 아버지의 의도적 통제와 애정적 양육행동 및 유아의 의도적 통제, 친사회적 행동, 인지적 문제해결능력 간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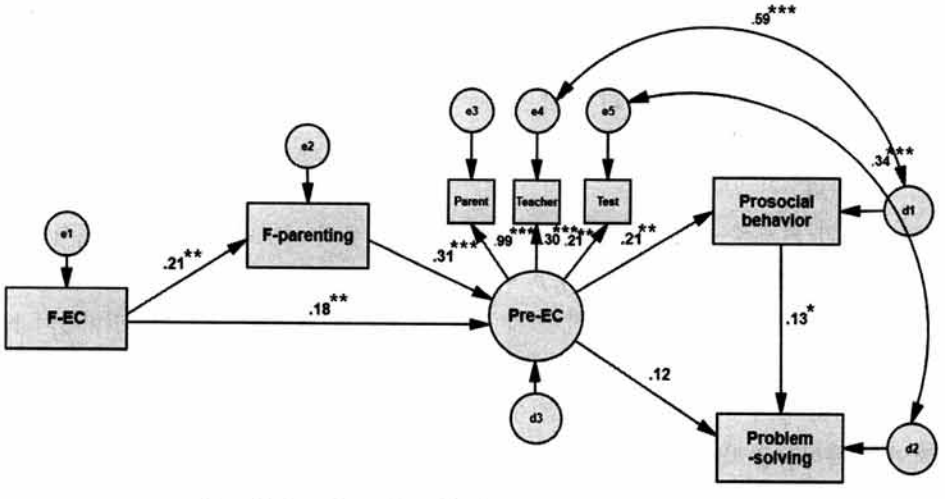
(1) 연구모형 1의 분석 결과

아버지의 의도적 통제 및 애정적 양육행동, 유아의 의도적 통제, 친사회적 행동 및 인지적 문제해결능력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모형 1을 분석한 결과, 적합도 지수인 RMSEA와 RMR은 .05보다 작고, 나머지 GFI, AGFI, NFI, TLI, CFI는 .09보다 크고 1에 가까울수록 적합한 모형임(Kim, 2010; Hong, 2000)에도 불구하고, RMSEA = .204, RMR = .203은 .05보다 훨씬 크게 나타났으며, GFI = .871, AGFI = .722, NFI = .424, TLI = .076, CFI = .428은 .90보다 작아서 모형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연구모형 1에서 d1과 e4, 그리고 d2와 e5 간의 공분산 경로를 연결하는 양방향 화살표를 추가하여 수정모형 1을 만들었다. d1과 e4를 연결한 이유는 친사회적 행동과 유아의 의도적 통제는 모두 교사가 보고한 점수이고 유아가 기관에서 보이는 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며, d2와 e5를 연결한 이유는 인지적 문제해결능력과 과제 관찰로 측정한 의도적 통제가 모두 실험이라는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친사회적 행동과 교사가 보고한 유아의 의도적 통제가 측정하지 못한 오차변량 그리고 인지적 문제해결능력과 과제 관찰로 측정한 의도적 통제가 측정하지 못한 오차변량 각각에서 서로 높은 상관이 있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2) 수정모형 1의 분석 결과

수정모형 1 분석 결과는 Figure 3과 같으며,



F = Father, Pre = Preschool, EC = Effortful Control.

〈Figure 3〉 Modified model 1

〈Table 3〉 Goodness-of-fit indices of modified model 1

Indices	χ^2	df	p	χ^2 /df	RMR	GFI	AGFI	NFI	TLI	CFI	RMSEA
Model 1	11.997	11	.364	1.091	.045	.985	.962	.948	.991	.995	.020

모형의 적합도는 Table 3과 같이 나타났다.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chi^2(11) = 11.997(p = .364)$, $\chi^2/df = 1.091$로 유의 수준 .05에서 모형이 자료와 합치된다는 귀무가설이 채택되었고, GFI = .985, AGFI = .962, NFI = .948, TLI = .991, CFI = .995로 모두 .9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RMR = .045, RMSEA = .020으로 .05보다 낮게 나타나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또한 Figure 3에서 나타난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유아 의도적 통제 → 인지적 문제해결능력'의 경로계수(.12, *ns*)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나머지 경로계수들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버지의 의도적 통제는 애정적 양육행동(.21, $p < .01$)과 유아 의도적 통제(.18, $p < .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애정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의도적 통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1, $p < .001$). 또한 유아의 의도적 통제는 친사회적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21, $p < .01$), 친사회적 행동은 인지적 문제해결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3, $p < .05$).

(3) 수정모형 1의 매개효과 검증

연구문제 1-2, 1-3, 1-5에 따라 수정모형 1의 각각의 경로에서 아버지의 애정적 양육행동과 유아의 의도적 통제 및 친사회적 행동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살펴보기 위해 Bootstrap 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아버지 의도적 통제 → 유아 의도적 통제'의 간접효과(.065, $p < .05$), '아버지 애정적 양육 → 친사회적 행동'의 간접효과(.064, $p < .05$), 그리고 '유아 의도적 통제 → 인지적 문제해결능력'의 간접효과(.026, $p < .05$)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애정적 양육행동은 아버지의 의도적 통제와 유아의 의도적 통제 간의 관계에서, 유아의 의도적 통제는 아버지의 애정적 양육행동과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에서, 그리고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은 유아의 의도적 통제와 인지적 문제해결능력 간의 관계에서 각각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버지 의도적 통제 → 친사회적 행동'의 간접효과(.051, $p < .05$)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 의도적 통제 → 인지적 문제해결능력'의 간접효과(.037, *ns*)와 '아버지 애정적 양육 → '인지적 문제해결능력'의 간접효과(.045, *ns*)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모형 1에서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효과를 산출한 결과를 종합하면 Table 4와 같다.

2) 어머니의 의도적 통제와 애정적 양육행동 및 유아의 의도적 통제, 친사회적 행동, 인지적 문제해결능력 간의 관계

(1) 연구모형 2의 분석 결과

어머니의 의도적 통제 및 애정적 양육행동, 유아의 의도적 통제, 친사회적 행동 및 인지적 문제해결능력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 2를 분석한 결과, 적합도 지수인 RMSEA = .209, RMR = .203은 .05보다 훨씬 크게 나타났으며, GFI = .864, AGFI = .707, NFI = .515, TLI = .234, CFI = .526은 .90보다 작아서 모형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연구모형 1에서 수정모형 1을 만들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d1과 e4, 그리고 d2와 e5 간의 공분산 경로를 연결하는 양방향 화살표를 추가하여 수정모형 2를 만들었다. 이렇게 수정모형을 정한 이유는 연구모형 1에서 설명한 바와 동

〈Table 4〉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of modified model 1

Path			Direct	Indirect	Total
Father-EC	→	Preschooler-EC	.182*	.065*	.247*
Father-EC	→	Father-parenting	.211*	-	.211*
Father-parenting	→	Preschooler-EC	.306*	-	.306*
Father-parenting	→	Prosocial behavior	-	.064*	.064*
Father-EC	→	Prosocial behavior	-	.051*	.051*
Preschooler-EC	→	Problem-solving	.122	.026*	.148
Preschooler-EC	→	Prosocial behavior	.208*	-	.208*
Prosocial behavior	↔	Problem-solving	.127*	-	.127*
Father-parenting	→	Problem-solving	-	.045	.045
Father-EC	→	Problem-solving	-	.037	.037

Note : EC = Effortful Control.
*$p < .05$.

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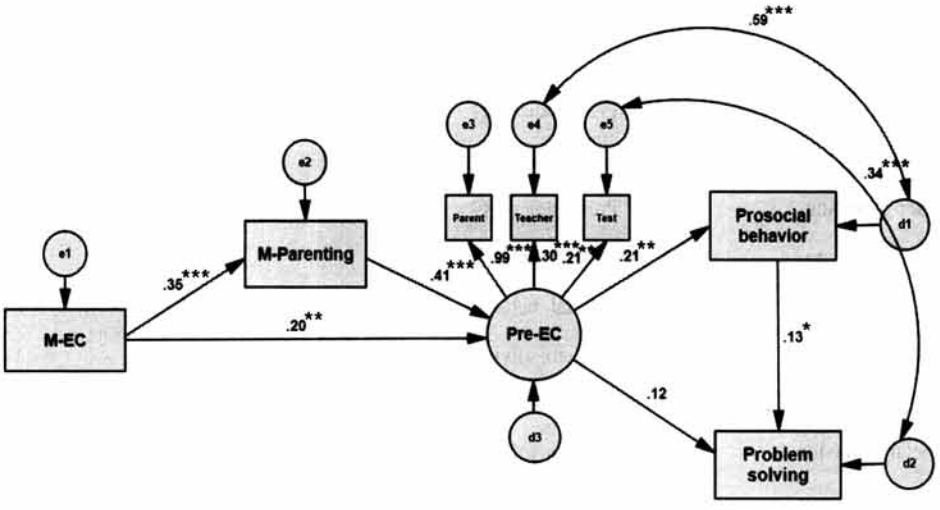
(2) 수정모형 2의 분석 결과

수정모형 2의 분석 결과는 Figure 4와 같으며, 모형의 적합도는 Table 5와 같이 나타났다.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chi^2(11) = 17.730(p = .088)$, $\chi^2/df = 1.612$로 유의 수준 .05에서 모형이 자료와 합치된다는 귀무가설이 채택되었고, GFI = .977, AGFI = .943, NFI = .938, TLI = .951, CFI = .975로 모두 .9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RMR = .047은 .05보다 낮고, RMSEA = .053으로 .08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비록 RMSEA가 모형의 좋은 적합도 기준인 .05보다는 크게 나타났지만 .08 미만이면 괜찮은 적합도를 나타낸다(Browne & Cudeck, 1993, as cited in Hong, 2000)는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였다.

또한 Figure 4에서 나타난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유아 의도적 통제 → 인지적 문제해결능력'의 경로계수(.12, *ns*)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나머지 경로계수들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머니 의도적 통제는 애정적 양육행동(.35, $p < .001$)과 유아 의도적 통제(.20, $p < .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의도적 통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41, $p < .001$). 또한 유아의 의도적 통제는 친사회적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21, $p < .01$), 친사회적 행동은 인지적 문제해결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3, $p < .05$).

(3) 수정모형 2의 매개효과 검증

연구문제 1-2, 1-3, 1-5에 따라 수정모형 2의 각각의 경로에서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과 유아의 의도적 통제 및 친사회적 행동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살펴보기 위해 bootstrap 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 의도적



M = Mother, Pre = Preschool, EC = Effortful Control.

〈Figure 4〉 Modified model 2

〈Table 5〉 Goodness-of-fit indices of modified model 2

Indices	χ^2	df	p	χ^2/df	RMR	GFI	AGFI	NFI	TLI	CFI	RMSEA
Model 2	17.730	11	.088	1.612	.047	.977	.943	.938	.951	.975	.053

통제 → 유아 의도적 통제'의 간접효과(.144, p < .05), '어머니 애정적 양육 → 친사회적 행동'의 간접효과(.085, p < .05), 그리고 '유아 의도적 통제 → 인지적 문제해결능력'의 간접효과(.026, p < .05)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은 어머니의 의도적 통제와 유아의 의도적 통제 간의 관계에서, 유아의 의도적 통제는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과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에서, 그리고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은 유아의 의도적 통제와 인지적 문제해결능력 간의 관계에서 각각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어머니 의도적 통제 → 친사회적 행동'의 간접효과(.071, p < .05)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 의도적 통제 → 인지적 문제해결능력'의 간접효과(.050, *ns*)와 '어머니 애정적 양육 → 인지적 문제해결능력'의 간접효과(.060, *ns*)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모형 2에서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효과를 산출한 결과를 종합하면 Table 6과 같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의 의도적 통제의 발달과 이에 따른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및 인지적 문제해결능력에서의 발달을 알아보기 위해 부모의 의도적 통제 및 양육행동, 유아의 의도적 통제, 친사회적 행동, 그리고 인지적 문제해결능력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들을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Table 6〉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of modified model 2

Path			Direct	Indirect	Total
Mother-EC	→	Preschooler-EC	.197*	.144*	.340*
Mother-EC	→	Mother-parenting	.350*	-	.350*
Mother-parenting	→	Preschooler-EC	.411*	-	.411*
Mother-parenting	→	Prosocial behavior	-	.085*	.085*
Mother-EC	→	Prosocial behavior	-	.071*	.071*
Preschooler-EC	→	Problem-solving	.121	.026*	.147
Preschooler-EC	→	Prosocial behavior	.207*	-	.207*
Prosocial behavior	→	Problem-solving	.127*	-	.127*
Mother-parenting	→	Problem-solving	-	.060	.060
Mother-EC	→	Problem-solving	-	.050	.050

Note : EC = Effortful Control.
*p < .05.

첫째, 부모의 의도적 통제가 유아의 의도적 통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의도적 통제 수준이 높으면 자녀의 의도적 통제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의도적 통제에서 개인차가 나타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부모의 의도적 통제의 영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와 자녀의 기질을 살펴본 연구(Jang, 2011; You, 1990; Yun, 2006)와 어머니와 자녀의 정서조절을 살펴본 연구(Lim & Park, 2002)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Lim과 Park(2002)의 연구에서 자신의 감정에 압도당하고 충동적으로 정서를 조절하는 어머니들의 자녀일수록 바람직하지 않은 정서조절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어머니의 의도적 통제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의 의도적 통제가 높게 나타난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동안 유아의 의도적 통제 발달에 있어 부모의 의도적 통제의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본 연구 결과는 기질의 한 측면인 의도적 통제가 부모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지지하는 경험적 증거가 된다. 이처럼 부모와 자녀의 특성들이 서로 유사한 것은 부모의 행동을 자녀가 관찰하여 모방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아동은 성장하면서 어머니의 정서표현을 관찰하고 이를 인식하여 이해하게 되면서 상황에 따라 스스로 자신의 정서의 강도를 조절하고 효율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획득하게 된다(Eisenberg & Fabes, 1994). 또한 의도적 통제 과정 즉, 무엇인가에 주의를 기울이며 행동을 억제하거나 활성화하는 부모의 심리내적 과정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자녀의 의도적 통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부모의 의도적 통제와 유아의 의도적 통제 간의 관계에서 애정적 양육행동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

의 의도적 통제는 유아의 의도적 통제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부모의 의도적 통제 수준은 애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어서 이러한 부모의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경험하는 유아는 높은 수준의 의도적 통제를 보이게 된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부모의 의도적 통제가 어떤 경로를 통해 자녀에게 영향을 주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해주며, 더 나아가 부모의 성격 혹은 기질적 특성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재고하게 한다. 오랫동안 부모와 자녀의 특성 중 특히, 성격과 기질은 전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공유된 유전의 결과 즉,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타고난 것이라고 생각되어 왔으나(Rowe, 1994), 최근에는 Eisenberg 등(1998)의 정서 사회화 모델에 근거하여 부모의 정서 표현력이 자녀의 의도적 통제 향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Valiente 등(2007)이 그들의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행동이 부모의 의도적 통제와 유아의 의도적 통제 간의 관계에서 매개한다는 것을 처음 밝혔을 만큼 부모의 의도적 통제 및 양육행동과 자녀의 의도적 통제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본 연구 결과는 유아의 의도적 통제에 대한 부모의 직접적인 영향은 부분적이며, 부모 양육행동이라는 매개변인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 역시 자녀의 의도적 통제 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것은 부모의 의도적 통제를 다룬 Valiente 등(2007)의 연구와 부모의 개인 성향이 그들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양육행동을 통해 자녀의 사회적 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제안한 Belsky(1984)의 연구와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더 나아가 의도적 통제와 관련된 다른 발달적 특성에 있어서 유아기 부모 역할의 중요성을 시사해 준다. 다시 말해, 애정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고려해볼 때, 의도적 통제 수준이 낮은 유아라도 부모가 애정적으로 양육해준다면 의도적 통제 능력이 향상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의도적 통제와 깊은 관련이 있는 자기조절 능력에 관한 선행연구(Kochanska & Aksan, 1995)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온정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자기조절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녀의 의도적 통제를 길러주기 위해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자녀의 정서나 행동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등을 알려주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부모의 양육 유형은 부모의 개인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부모 자신의 의도적 통제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정서적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욱 필요할 것이라 여겨진다.

셋째, 부모의 애정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유아의 의도적 통제 역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애정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주지만, 이는 유아 자신의 의도적 통제 수준에 의해 매개됨을 의미한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은 친사회적 행동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Park, 1999; Suh & Kim, 2009), 유아의 의도적 통제 혹은 의도적 통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서 조절, 주의력 통제 등이 친사회적 능력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umberland-Li, Eisenberg, & Reiser, 2004; Eisenberg et al., 1997; Valiente et al., 2004). 그러나 이러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부모 양육과 유아의 의도적 통제 각각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므로 이들 간의 종합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부모의 양육과 유

아의 문제 행동 혹은 사회적 적응 사이에서 유아 의도적 통제가 매개역할을 한다는 선행연구들(Moon, 2010; Han, 2010; Eisenberg et al., 1998; Lengua, 2008; Valiente et al., 2007)의 견해를 뒷받침 한다.

또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사회적 기능을 감소시키는 의도적 통제의 역할만을 주로 다루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친사회적인 행동을 포함하는 긍정적인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키는 의도적 통제의 역할을 다루었다. 다시 말해, 선행연구들에서는 의도적 통제의 하위 능력 중 억제 조절에 주로 초점을 두고 있지만,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활성화 조절 능력이 사회적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러한 본 연구 결과는 부모의 지지적인 양육과 유아의 의도적 통제 및 사회적 유능감을 살펴본 Spinrad 등(2007)의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하며, 유아의 의도적 통제가 부모 양육과 자녀의 사회적 기능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감정이나 행동은 억제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고 친사회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역할을 함을 시사해 준다.

넷째, 유아의 의도적 통제가 친사회적 행동과 인지적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의도적 통제는 친사회적 행동에만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인지적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유아의 의도적 통제가 친사회적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감정 이입 및 공감능력이 의도적 통제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들(Eisenberg et al., 2007; Valiente et al., 2004)의 결과와 유사하며,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중 행동억제는 친사회성 및 사교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한 Kim과 Lee(2008)의 연구 결과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유아가 자신의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은 유아의 기질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Scarr & McCartney, 1983) 유아의 의도적 통제 수준이 유아가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영향을 주고 이로 인해 유아는 주변 사람들에게 친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의도적 통제가 높은 유아는 관심의 초점을 자신으로부터 타인이나 사회적 상황으로 옮길 수 있으며, 자신의 정서에 따른 행동을 억제한 후 타인의 정서나 사회적 맥락에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으므로 친사회적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유아의 의도적 통제가 인지적 문제해결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추측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직접적인 영향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학업 성취나 주의력이 아닌 인지적 문제해결능력을 살펴보았지만, 본 연구 결과는 인지 능력과 유아의 의도적 통제가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들(Blair & Razza, 2007; Rothbart & Posner, 2005)의 견해를 뒷받침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의도적 통제와 인지 능력 간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들의 대상이 대부분 학령기 아동이라는 것과 인지적 조절 전략의 사용에서 의도적 통제 능력은 학령기 동안 더 증가한다는 Eisenberg와 Morris(2002)의 연구 결과를 고려해 볼 때, 본 연구의 대상인 유아들은 아직 인지적 작업에서 의도적 통제를 사용하는 능력이 미숙하기 때문에 의도적 통제가 인지적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해 유아기 의도적 통제 능력이 얼마 후에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인지 능력에 영향을 주는지, 또한 의도적 통제가 인지 발달을 돕는 과정을 촉진하는 요소들은 무엇인지에 관해 연구함으로써 의

도적 통제와 인지 발달 영역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다섯째, 유아의 의도적 통제가 인지적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친사회적 행동은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가 주의력 조절을 잘 하고, 행동을 억제하고 활성화하는 능력이 뛰어날 때 친사회적인 행동을 많이 하게 되며, 이러한 친사회적인 경험은 유아의 인지적 문제해결능력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중국 아동의 의도적 통제와 학업 성취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으로 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과 사교성을 포함하는 사회적 유능감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Zhou, Main과 Wang(2010)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며, 인지 능력의 발달 혹은 표출이 사회·정서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의도적 통제 수준이 높은 아동은 사회적 유능감이 발달하며 그로 인해 교사나 또래로부터 수용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은 학업을 위한 사회·정서적 자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대인관계 메커니즘(interpersonal mechanism)으로 설명할 수 있다(Wentzel, 1991; Wentzel & Asher, 1995). 그리고 사회적으로 유능한 아동은 교사나 또래에게 학업 과제에 대한 도움을 받기 쉬우며, 학업을 좋아하는 또래와 잘 어울리게 되어 학업에 매진하고자 하는 동기를 얻게 되는 동기부여 메커니즘(motivational mechanism)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Zhou et al, 2010). 즉, 유아의 의도적 통제는 이타적이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친사회적 행동을 하도록 이끌며, 친사회적 능력이 뛰어난 유아는 부모, 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를 통해 문제 상황에서 도움을 받거나,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음으로써 인지적 문제해결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된다. 또한 의도적 통제로 인해 친사회적 능력이 뛰어난 유아는 자신보다 인지적 능력이 뛰어난 유아와 함께 어울리기 쉬우며, 문제해결 과정을 회피하기 보다는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주변의 유아들을 통해 문제해결에 대한 동기부여를 얻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의도적 통제와 친사회적 행동 즉, 사회·정서 능력과 인지적 문제해결능력 간의 관계는 인지적 문제해결능력이 부족하거나 읽기, 수학 등의 학업에서 실패를 경험하는 유아 및 아동에게 사회·정서 능력을 함양시켜줄 수 있는 중재프로그램의 유용성을 시사한다.

이처럼 본 연구는 유아 의도적 통제에 대한 부모의 직접적인 영향과 부모 양육행동이라는 매개체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을 모두 살펴보았으며, 유아의 긍정적 사회적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의도적 통제의 역할을 다루고, 사회·정서발달뿐만 아니라 인지발달과의 밀접한 관련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상의 결론을 내리며 후속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 양육행동이 유아의 의도적 통제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관계를 다루었지만, 유아의 의도적 통제와 부모 양육행동은 각각 혹은 서로 상호작용하여 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또한 부모와 유아의 의도적 통제 간의 관계에서 부모 양육행동이 조절변인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후속 연구를 통해 둘 간의 상호작용 등 또 다른 관점에서의 부모 양육행동과 자녀의 의도적 통제 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기질의 한 요소인 의도적 통제가 유아의 발달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좀 더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단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의도적 통제 및 관련 변인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연령 등의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고려하여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의도적 통제와 사회·정서 및 인지

능력 간의 관계를 좀 더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친사회적 행동이나 인지적 문제해결능력이 아닌 다른 사회·정서 및 인지 능력들을 포함하는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Ahadi, S. A., Rothbart, M. K., & Ye, R. M. (1993). Child temperament in the U.S. and Chilna :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7*, 359-378.

Bae, K. J. (2001). Effects of individual and familial characteristics on preschoolers' theory-of-mind.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Bae, Y. J., & Lim, J. Y. (2012). Relations between parents' effortful control, parenting behavior and infants' effortful control.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50*(2), 53-64.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Blair, C., & Razza, R. P. (2007). Relating effortful control, executive function, and false belief understanding to emerging math and literacy ability in kindergarten. *Child Development, 78*, 647-663.

Chang, F., & Burns, B. M. (2005). Attention in preschoolers : Associations with effortful control and motivation. *Child Development, 76*(1), 247-263.

Cumberland-Li, A., Eisenberg, N., Champion, C., Gershoff, E., & Fabes, R. A. (2003). The relation of parental emotionality and related dispositional traits to parental expression of emotion and children's social functioning. *Motivation and Emotion, 27*(1), 27-56.

Cumberland-Li, A., Eisenberg, N., & Reiser, M. (2004). Relations of young children's agreeableness and resiliency to effortful control and impulsivity. *Social Development, 13*(2), 193-212.

Deater-Deckard, K., Mullineaux, P. Y., Petrill, S. A., & Thompson, L. A. (2009). Effortful control, surgency, and reading skills in middle childhood. *Reading & Writing, 22*(1), 107-116.

Dennis, T. A., & Brotman, L. M. (2003). Effortful control, attention, and aggressive behavior in preschoolers at risk for conduct problems.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1008*, 252-255.

Dennis, T. A., Brotman, L. M., Huang, K. Y., & Gouley, K. K. (2007). Effortful control, social competence, and adjustment problems in children at risk for psychopathology.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6*, 442-454.

Duran, R. T., & Gauvain, M. (1993). The role of age versus expertise in peer collaboration during joint planning.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55*, 227-242.

Eiden, R. D., Edwards, E. P., & Leonard, K. E. (2007). A conceptual model for the development of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among kindergarten children of alcoholic families : Role of parenting and children's

self-regul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43*(5), 1187-1201.

Eisenberg, N., Cumberland, A. J., & Spinrad, T. L. (1998). Parental socialization of emotion. *Psychological Inquiry, 9*, 241-273.

Eisenberg, N., & Fabes, R. A. (1994). Mother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 Relations to children's temperament and anger behavior. *Merrill-Palmer Quarterly, 40*, 138-156.

Eisenberg, N., Guthrie, I. K., Fabes, R. A., Reiser, M., Murphy, B. C., Holgren, R., Maszk, P., & Losoya, S. (1997). The relations of regulation and emotionality to resiliency and competent social functioning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Child Development, 68*(2), 295-311.

Eisenberg, N., Hofer, C., & Vaughan, J. (2007). Effortful control and its socioemotional consequences, In J. J. Gross (Ed), *Handbook of Emotion Regulation*. New York : Guilford.

Eisenberg, N., & Morris, A. S. (2002). Children's emotion-related regulation. In R. V. Fox (Ed.), *Advances in child development and behavior* (pp. 189-229). New York : Academic Press.

Eisenberg, N., Valiente, C., Spinrad, T. L., Cumberland, A., Liew, J., Reiser, M., Zhou, Q., & Losoya, S. H. (2009). Longitudinal relations of children's effortful control, impulsivity, and negative emotionality to their externalizing, internalizing, and co-occurring behavior problems. *Developmental Psychology, 45*(4), 988-1008.

Eisenberg, N., Zhou, Q., Spinrad, T. L., Valiente, C., Fabes, R. A., & Liew, J. (2005). Relations among positive parenting, children's effortful control, and externalizing, and problems : A three-wave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76*, 1055-1071.

Flavell, J. H., Miller, P., & Miller, S. A. (2002). Cognitive development, 4th Edition, published by pearson Education, Inc, published as Prentice Hall.

Gilliom, M., Shaw, D. S., Beck, J. E., Schonberg, M. A., Lukon, J. L., & Winslow, E. (2002). Anger regulation in disadvantaged preschool boys : Strategies, antecedents, and the development of self-control. *Developmental Psychology, 38*, 222-235.

Graziano, P. A., Keane, S. P., & Calkins, S. D. (2010). Maternal behaviour and children's early emotion regulation skills differentially predict development of children's reactive control and later effortful control.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9*(4), 333-353.

Han, Y. S. (2010). The effects of mothers' emotional expressivity on children's aggression : Mediating effects of effortful control.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Hong, S. H. (2000). The criteria for selecting appropriate fit indice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their rationales.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1), 161-177.

Jang, C. Y. (2011). The effects of mother's temperament, infant experiences, and nursing attitude on temperament and emotional competence in early childhood.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Kim, K. S. (2010). *Amos 18.0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oul : Hannarae.

Kim, M. J., & Yu, Y. O. (2011). Young children's self-regulation ability according to parents' emotional expressiveness type and their gender. *Child Education, 20*(1), 95-111.

Kim, S. H. (2011). Maternal overprotection in relation to child emotion regulation and peer relationship.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Kim, W. T., & Lee, I. S. (2009). Young children's self-regulation and social competence with peer based on family interaction style. *The journal of Korea Early Childhood Education, 16*(1), 1-21.

Kim, Y. O. (2003).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prosocial behavior scale for young childre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4*(5), 105-118.

Kochanska, G., & Aksan, N. (1995). Mother-child mutually positive affect, the quality of child compliance to requests and prohibitions, and maternal control as correlates of early internalization. *Child Development, 66*, 236-254.

Kochanska, G., Murray, K., & Harlan, E. T. (2000). Effortful control in early childhood : Continuity and change, antecedents, and implications for social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36*, 220-232.

Lengua, L. J. (2008). Anxiousness, frustration, and effortful control as moderators of the relation between parenting and adjustment in middle-childhood. *Social Development, 17*(3), 554-577.

Lengua, L. J., Honorado, E., & Bush, N. R. (2007). Contextual risk and parenting as predictors of effortful control and social competence in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8*, 40-55.

Li-Grining, C. P. (2007). Effortful control among low-income preschoolers in three cities : Stability, change, and individual differences. *Developmental Psychology, 43*(1), 208-221.

Lim, H. S., & Park, S. Y. (2002). Child's sex, temperament, mother's emotion regulation and parenting as related to child's emotion regulatio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3*(1), 37-54.

Moon, Y. K. (2010). The Effects of maternal emotional availability on preschooler's social skills and problem behaviors : Mediating effects of preschooler's effortful control.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Park, K. J. (1999). Antecedents of prosocial behaviors in preschooler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7*(1), 79-89.

Park, S. Y. (2006). *Child Development*. Paju : Kyomunsa.

Park, S. Y. (2010). The relation between children's playfulness and prosocial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Buk, Korea.

Putnam S. P., & Rothbart, M. K. (2006). Development of short and very short forms of the

children's behavior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87*(1), 103-113.

Putnam, S. P., & Stifter, C. A. (2008). Reactivity and regulation : The impact of Mary Rothbart on the study of temperament.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7*, 311-320.

Rothbart, M. K., Ahadi, S. A., & Evans D. E. (2000). Temperament and personality : Origins and outcom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 122-135.

Rothbart, M. K., & Bates, J. E. (2006). Temperament. In N. Eisenberg & W. Damon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 Vol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6th ed., pp. 99-166). New York : Wiley.

Rothbart, M. K., & Posner, M. I. (2005). Genes and experience in the development of executive attention and effortful control.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109*, 101-108.

Rowe, D. C. (1994). *The limits of family influence : Genes, experience, and behavior.* New York : Guilford Press.

Scarr, S., & McCartney, K. (1983). How people make their own environments : A theory of genotype → environment effects. *Child Development, 54*, 424-435.

Seo, S. J. (2006). A study of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 Children's language development, requestive strategies, and maternal socialization beliefs and strategies.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8*(11), 287-310.

Shin, S. K. (2008). An analysis on the young children's communication strategies, social behavior, and problem-solving ability with the types of pla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Korea.

Spinrad, T., Eisenberg, N., & Gartner, B. (2007). Measure of effortful regulation for young children.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2*(6), 606-626.

Suh, Y. M., & Kim, J. K. (2009).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s child rearing attitude, and an only child's multiple intelligences and prosocial behaviors.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4*(6), 349-369.

Valiente, C., Eisenberg, N., Fabes, R. A., Shepard, S. A., Cumberland, A., & Losoya, S. H. (2004). Prediction of children's empathy-related responding from their effortful control and parents' expressivity. *Developmental Psychology, 40*(6), 911-926.

Valiente, C., Lemery-Chalfant, K., & Reiser, M. (2007). Pathways to problem behaviors : Chaotic homes, parent and child effortful control, and parenting. *Social Development, 16*(2), 249-267.

Welsh, M. C. (1991). Rule-guided behavior and self-monitoring on the Tower of Hanoi disk-transfer task. *Cognitive Development, 6*(1), 59-76.

Welsh, M., Parke, R. D., Widaman, K., & O'Neil, R. (2001). Linkages between children's social and academic competence :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9*, 463-482.

Wentzel, K. R. (1991). Relations between social

competence and academic achievement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2,* 1066-1078.

Wentzel, K. R., & Asher, S. R. (1995). The academic lives of neglected, rejected, popular, and controversial children. *Child Development, 66,* 754-763.

You, M. H. (1990). Maternal perceptions and reactions to infant cries as a function of easy-difficult infant tempera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Yun, H. J. (2006). The relationships between infant temperament, mother temperament and parenting effica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ha University, Incheon, Korean.

Yun, S. Y. (2009). The influence of self-concept and effortful control on childrens moral behavior : A comparison between boys and girl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Zhou, Q., Lengua, L. J., & Wang, Y. (2009). The relations of temperament reactivity and effortful control to children's adjustment problems i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Developmental Psychology, 45*(3), 724-739.

Zhou, Q., Main, A., & Wang, Y. (2010). The relations of temperamental effortful control and anger/frustration to chinese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and social adjustment :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02*(1), 180-196.

Zhou, Q., Wang, Y., Deng, X., Eisenberg, N., Wolchik, S., & Tein, J. Y. (2008). Relations of parenting and temperament to Chinese children's experience of negative life events, coping efficacy, and externalizing problems. *Child Development, 79,* 493-513.

2012년 2월 7일 투고, 2012년 5월 14일 수정
2012년 5월 31일 채택